

“역사의 죄인 더이상 꿈수 안 통해...진실 밝히고 속죄하길”

전두환 구인장 발부...지역민 반응

5월단체 등 법원 판단 환영...“5·18 만행 참회할 마지막 기회”
빌미 안 주도록 감정적 대응 자제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성이 있는 구인장을 발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5·18유족과 5월 단체,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일제히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5월 단체를 중심으로 “전씨의 강제 구인 조치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실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칫 광주시민의 반응을 재판 불충족의 핑계로 삼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도.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가 지난 8월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5·18유족과 5월 단체, 시민사회, 정치권 등은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촉구해 왔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씨에 대한 구인장 발부는 합당한 결과”라면서 “전씨는 3월 11일 법원에서 5·18 진상을 밝히고, 광주시민과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재판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며 “전두환은 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5월단체 관계자들도 광주시민의 성숙한 모습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준식 5·18유족회장은 “광주시민이나 5월단체 회원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전씨가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전씨는 스스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강제로 광주에 올 처지가 됐다”면서 “전씨를 보게 되더라도 다른 회원들과 함께 냉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등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씨의 재판 출석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전두환씨는 재판에 넘겨지고도 차일피일 회피하려고만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것에 대해 희생자 및 유가족,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와 엄중한 책임을 지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전두환이 독감을 이유로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판을 피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같은 꼼수를 부려가며 형사재판에 불참하는 것은 강제구인의 확실한 사유가 된다. 오월 영령과 국민 그리고 이제 사법부까지 능라하고 있는 전씨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두환이 이순자의 말대로 민주주의의 아버지이고 광주 시민 앞에 떳떳하다면 광주에서 재판을 받기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하루빨리 자신이 저지른 만행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이 7일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성실히 재판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CJ대한통운, 파업 참가 노조원 탄압 중단하라”

택배노조 광주지회 촉구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지회(택배노조)는 7일 “CJ대한통운은 파업 참가 노동자에 대한 형사고소(업무방해 혐의 등) 등 노조 탄압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지역에서 파업참가 조합원 170여명 중 74명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했다”면서 “CJ대한통운은 이 같은 노조 탄압·외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측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확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있다”며 “사측은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배송사고·반쯤에 대한 개인별 금액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노사 간 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이어 경찰측에 “재벌 대기업의 입장이 아닌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택배노조는 노사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 간 파업을 벌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에이즈 보건자 거부한 대학병원 검진센터 차별행위”

인권위, 시정 조치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에이즈 바이러스(HIV) 보건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HIV 감염인인 A씨는 2017년 8월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정 HIV 감염인 상담사업을 수행하는 한 대학병원의 건강검진 센터에 찾아가 종합건강검진 일자를 임시로 예약한 뒤 한 차례 재방문해 검진일자를 확정하려고 했다. A씨는 이 병원 감염내과에서 2012년부터 진료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 병원은 HIV 감염인 검진을 할 수 없다며 검진센터가 아니라 외래 소화기 내과를 통해서 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그제야 예약을 확정해줬고,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해당 병원은 HIV 감염인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HIV 감염인 상담사업에 참여하는 공신력과 책임감을 가진 의료기관”이라며 “어느 의료기관보다 성실하게 관련 원칙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필수 보호장구가 없다는 이유로 검진을 거부했다면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펼쳤더니...5대 강력범죄 ‘뚝’

광주 전년동기비 7.5% 줄어

광주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치안 활동을 벌인 결과 강력범죄가 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자칫 들뜨기 쉬운 분위기에 편승한 주요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월 6일까지 45일간 특별치안 활동 기간을 운영했다.

취약 지역과 시간에 지역 경찰 자원근무자, 경찰관 기동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주민접촉형 순찰 활동을 펼친 결과 강·절

도 등 5대 범죄 발생이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다.

특히 연말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질서유지(주취자, 시비, 행패 소란 등) 신고가 19.1% 줄었다.

유형가·대학가·먹자골목 등 범죄예방 활동으로 폭력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9%가 주는 성과를 거뒀다.

112신고 총력대응태세를 유지해 지난해 18일 북구에서 발생한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를 신속한 출동으로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했더니...체납액 ‘즉각 납부’

3개월만에 9700여명 달해

교통범죄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되자 3개월간 1만명 가까운 인원이 체납액을 바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만 2440명이 교통범죄금·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들 가운데 78.3%(9741명)가 체납액을 즉각 납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것

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한 금액은 11억 1400만원이었다.

면허증 발급이 거부되고도 범죄금·과태료 체납 상태인 이들은 2699명(21.7%)으로, 납부자들보다 인원은 적으나 체납액은 10억 35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보다 소액체납자들이 면허발급 거부 후 체납액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액 체납자는 대포차 등 불법 차량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채석강 경치에 빠져...물때 놓친 관광객들 한때 바다위 고립



○...전북의 관광명소인 채석강으로 겨울바다 여행을 떠났던 20대 관광객들이 물때를 놓쳐 바다 위에 고립됐다. ○...7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부안군 변산면 채석강에서 A(22)씨 등 관광객 2명이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

다. ○...해경은 경비정을 띄워 이들을 무사히 구조했는데 해경 관계자는 “채석강 등 특정 해안지역은 만조 때 육지와 연결이 끊기는 곳이 있다”면서 “해안가 방문 전에는 반드시 물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

/부안=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